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찬 송 38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다 같 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대 표 기 도 가 족 중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2021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가족들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복 주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먼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인 가정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길까지 내림 같고
-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 씀 연합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 인 도 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평안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현실이지만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혈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한 형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적으로 가족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혈연적 연합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혈연적으로 하나 되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만 진정으로 연합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자리에 주님도 함께하십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가정이 예배로 모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나 만들지도 못했고, 아무 데서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기물들이 기름을 통해서 구별되었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거룩해지고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혈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 가나안 땅의 산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생명의 물임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되기 원합니다.

찬 송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같 이

기 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 기 도 문 다 같 이

교 제 윷놀이 다 같 이

활동이름

설 명절 윷놀이 활동

준비물

윷, 윷놀이 판, 말

활동방법

1. 꿈미 설 명절 자료를 출력하신 후 판을 준비해주세요.
2. 윷놀이용 말을 출력하신 후 오려주세요.
3. 팀을 나눈 후 윷놀이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